

## 총장후보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

### “현규정에 따른 선출방식이 최선책”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는 지난 15일 교수총회에서 대외원회를 열었다.

정원 44명중 27명이 참석한 대외원회는 총장직선제를 치루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발족을 위한 첫 모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모인 대외원들은 총장후보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한 뒤, 현규정에 의한 총장후보의 선거가 최선책임을 확인하고 규정의 개정보다는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통해 총장직선제의 문제점을 극복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또 총장선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후보간의 정책대결을 유도하여 인맥·파벌 조성을

없애고 책임행정을 유도하며 선거공명제의 확립을 통해 과열·혼탁 선거를 방지한다는 것을 내놓았다.

한편 노조측에서는 대외원회에 앞서 서울·경주 노조위원장들이 노조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단과대 교수대의원회에서 1인씩 추천하여 결정되는 선관위원은 지난 21일까지 예출대를 제외한 서울·경주 캠퍼스 모두 추천완료 됐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불교대=이병산(선학) △문과대=김태준(국문학) △이과대=이종준(수학) △법과대=박영길(법학) △사과대=김진철(정치외교학) △경상대=김태홍(무역학) △농과

대=박교수(산림자원학) △공과대=이진구(전자공학) △사법대=임영정(역사교육) △예술대=미정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이수경(철학·이공학) △인문대=최희석(국사학) △자연대=이동용(생화학) △상경대=조창욱(경영학) △법정대=이준성(법학) △한한대=박원환(한의학) △의대=이영배(의학)

교수회는 “선거일정을 비롯한 선거관련 제반사항은 모두 선관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9일 선관위원을 소집해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선거일정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노조·학생측, 교수회에 입장 표명

### 학내구성원 합의배제한 재단납점총장 거부

한달남짓 남은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선거제 및 선출방식에 있어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의 발결음이 분주하다.

교수회는 지난 15일 대외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가졌으며 직원노조 역시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교수, 직원, 학생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해 지난 19일 교무위원회회의실에서 3차연석회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형 교수회 총무, 김윤길 노조위원장, 고정환 부총장생과장 등 각 운영위를 포함한 6인이 참석하여 총장선출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별 전전없이 각각의 입장전달에 머문 이날 자리는 교수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면 다시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의하는 것으로 자리를 매듭지었다.

직원노동조합(위원장=김윤길·총무)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교수회, 총학생회와 함께 현 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총장 선출제도를 합의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법적으로 부여된 총장 선출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나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한 선출제도를 통해서 추천된 후보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선출

한다면 명백히 거부한다. △노조는 교수회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힘을 결집하는 범주에서 참여한다. △후보 등록의 과정을 거칠 경우 임후보자는 등록 이전에 학교의 공식 보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등 총장선출에 관한 노조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서별, 직종별로 총장선출 참여에 관해 분담토론을 계속 벌이고 있는 노조는 총장선출에 대한 학내 분위기의 공요 및 직원이 총장선출 참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윤길 노조위원장은 “4차연석에 걸친 교수회의의 자리를 통해 교수회가 90년 시행 방식대로 총장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노조에서 제안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방식의 경우 전체교수 인원의 위상을 높이고 총장직의 발전과 동문간의 결속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극적인 대화를 추진한다. △이사회, 교수회의 권위를 존중한다. △형식에 안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향의 제주체들의 참여를 관찰시킨다등의 입장을 밝혔다.

**동국인체육대회 개최**

‘제11회 동국인 체육대회’가 총동창회(회장=황명수)주최로 지난 22일 경주 조선호텔에서 있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23일 경주캠퍼스 문무관에서 개최됐다.

경주직할 동창회 주관으로 대구, 포항, 광주, 대전, 청주, 부산, 지역개발대학 등 전국에서 모인 총 5백여명의 동문이 참석, 배구, 축구, 탁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체조, 사파라기 등 2개 번의 경기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지역개발대학원 동문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경주직할동창회장 공재홍 등은 “영남지역 동문 체육대회로 처음 시작해 전 동국인의 축제로 발전한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며 “이 한바탕 잔치가 동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총동창회의 발전과 동문간의 결속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 내년 교수 79명 충원

### 전산통계학군 교원채용 하기로

‘95학년도 1학기에 서울캠퍼스 일 반계열 38명, 경주캠퍼스 의과계열 27명등 서울·경주 총 79명의 교수가 충원될 계획이다.

전산통계학군을 포함해 서울 28개학과, 경주 13개학과에 교수충원 계획을 밝힌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과)는 오는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지원접수를 받는다.

이번 신규교수초빙계획에 대해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대학기 1~20명이었다면 한 학기에 79명의 교수를 충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내년에 있을 대학합병평가에 대비하는 목적이 크겠지만 각과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교수를 채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형기 교수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이형기(국어국문학)교수가 제26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이상은 그동안의 문단활동을 치하하기 위하여 문화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으로 시상식은 지난20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기념잔치에서 있었다.

## 아시아 게임서 금메달 획득

### 사격·복싱·레슬링 부문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동문 및 재학생들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병우(관광경영4)군이 남자소구경단체전과 개인전 소구경 단자재 소구경에서 2개의 금메달을 이송배(대학원체교과 석사과정)군이 복싱 미들급에서, 김태우(체교86졸)동문이 레슬링 자유형 81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땀다.

## 식수대 8대 설치

관과(과장=오복용)는 식수대 8대를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교내에 설치했다.

제10회 학생복지위원회(임시위원장=강희순·불교4)의 요청으로 설치된 식수대는 △분관 2층 △교수회관 1층 △명진관 1층 △동국관M동 3층 △세화관 2층로비 △원인관 4층 △학림관 현관 △학생회관 로비 등이다.

관과과장은 “식수대는 살균된 정수수를 겸하고 있어 학생들의 이용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본사사령

◇위원장직  
△허동혁(공과대 화공2)  
=문화 1차장직 사직차장

## 보리수

### 말미암아 일어남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

연기의 기본공식으로 널리 설명되고 있는 아합경의 가르침이다. 연기란 ‘말미암아 일어남’이라는 뜻으로 ‘무엇인가 보리수’에서 깨달은 상대주의적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존재하는 모든것을 그럴만한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또한 그럴만한 조건이 있어서 소멸한다는 말이다. 일정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발생과 소멸, 이는 곧 모든 존재의 상관성 또는 상호의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존재론에서라면 세상에 조건없이 발생하는 것, 아무런 제약 없이 존재하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무조건적인 것, 또한 용납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말미암아 일어나고 소멸할 뿐이다. 여기서 연기의 문제는 다시 일체의 존재와 현실 그것을 모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인(因)이 되고 과(果)가 되는 역시 상의상관(相依相關)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연기와 인과의 법칙은 붓다의 근본교설 가운데서도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것이 특히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인식과 그 바람직한 존재방식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상의상관성의 연기론적 관점에서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깊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것과 인과의 법칙에 비추어 자신의 존재방식

및 세상의 운강 현실을 끊임없이 개선해갈 것을 당위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삶은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무수한 조건들에 의해 중으로 웅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와 관련되고 부모로서 자식과 관련되며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그 관계는 무궁무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 자기의 삶은 결코 자기만의 것이 아니다. 그의 한 생각 하나의 동작마저 관련되는 모든 사물들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그 시대와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자신의 행위 일체는 그대로 전 우주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우리가 인간과 사물과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금 우리는 참담한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현실들을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범죄들, 인간성의 황폐와 온갖 중류를 망라한 대형사고들, 게다가 대낮에 다리가 무너져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은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모두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며 그럴만한 조건이 인되어 생긴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저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책임 몫이 어떤 것인가도 함께 가능해 보아야만 한다.

## 제32회 미술상 및 제9회 등대문학상 작품 모집

###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 많은 응모 바랍니다

李逢春

# 교수초빙

## ■ 1995학년도 제1학기 초빙분야

### ● 서울캠퍼스

학과	전공분야	학과	전공분야
불교	불교사상사	생물자원경제	농업경제학 및 농업경영경제
국어국문	현대소설 및 문학이론	전자공	반도체공학
영어영문	영어학(영태론)	컴퓨터공	컴퓨터공학
독어독문	영어소설(18세기 영소설)	전기공	전동력 응용 및 제어
수	회화 및 작문(외국인)	기계공	기계공학 또는 CAD/CAM
위생수학	수 위생수학	토목공	수리학 및 수문학
전산통계학군	소프트웨어공학	건축공	건축이론 및 설계
반도체과학	반도체물리학	산업공	수리계획론
경찰행정	경찰학(이론 및 실무)	국어교육	제초기 및 설계(기계공학전공자 가능)
사회	산업·정보사회학	교육	교육과정
경제	노동경제학 또는 경제이론	지리교육	지리정보시스템
무역	국제통상관리분야 무역관련영어(외국인)	가정교육	가정학 및 가정학 연구방법
경영	재무관리 경영정보/생산관리	미술	조소(열조) 한국화(색채화)
회계	세법 및 재무회계	연극영화	영화실기 및 이론
정보관리	행정론적 MIS		

### ● 경주캠퍼스

학과	전공분야	학과	전공분야
불교	선학	불교아동	불교아동연구방법론 및 통계학
국악	불교음악	일어일본	일본사회론
국어사	한국사(현대사)	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세포생화학	전산통계	전산통계학(그래픽스 이론)
전산통계	전산통계학(그래픽스 이론)	전자계산	전산학
경영	재무관리(투자론)	정보산업	분산정보시스템
한 의	서울·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정주과 인천: 한방부인과, 한방물리요법과	의	경주: 해부학, 병리학, 예방의학(산업의학), 내과(혈액종양학), 산부인과, 진단방사선학(중재적 방사선학),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구강외과) 포항: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개흉술), 상해외과, 소아과, 해부병리과, 이비인후과, 안과

1.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정명

2. 자격: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의학계는 '95년 4월말 군면제대상자도 지원가능)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학계, 예·체능계열은 예외), 1952년 3월 1일 이후출생자 (특정 및 의학계열은 예외) 다.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분

3. 제출서류: 가. 이력서(근무지, 전공분야 및 전변번호를 우측상단에 명기, 명함사진 부착) ..... 2부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 각 1부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빙 서류) ..... 각 1부

라.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일자 명기) ..... 2부 마. 연구실적물(학위논문과 '91. 3. 1이후 발표된 논문 및 저서) ..... 각 1편 바. 임용후 수행할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 ..... 1부 사. 전문의 자격증 사본(의학계열 지원자에 한함) ..... 1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1994년 11월 14일(월) ~ 11월 16일(수) 17:00까지 나.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무과(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5. 기타: 가. 외국어로된 증명서는 본인인 남인만 번역문을 첨부 나. 서류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60-3031~3034】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61)770-2031~2034】

## 동국대학교

참다운 사람을 길러낼  
훌륭한 스승을  
모십니다.

### 자유 발언대

## ‘동국민족주의’로 독특성 발휘해야

‘판판판판판판판판’ 신축중인 동국별관에서 나는 이 소리는 동국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개교 88주년,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 21세기 동국발전 준비위원회, 동국인 가족음악회, 동국미피아 등의 용어들은 동국에 변화와 발전의 상징성을 함의한다.

물라탕답도록 냉전이 종식되고 극한 이념대립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방향성은 상호존중의 심화와 국제화, 개방화, 그리고 민족주의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방화라는 세계적 현상은 교육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곧 대학교육도 국제시장에 개방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고자 국내 대학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여러 기관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상승추세의 역동성에 힘을 실어 동국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 동국에 새로운 이념방향이 필요하다. 개교 이래 배타적이지 않고 탄력적이며 화합적인 이념, 동진성에 바탕을 두면서 민족의 장래와 안전 국제경쟁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이념, 동국만의 독특성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는 동국민족주의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이념의 확립을 위해서는 동국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해야 한다.

① 재학생, 학문적 기초소양을 갖춘 창조적 인물을 배출하는 교육과정의 운영되고 있는가. 동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자인 재학생 자신은 부끄럽지 않은 대학생활·연구활동을 하고 있는가. 독창적 상상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동국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② 교육자, 교육활동의 장에서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학문전수를 하고 있는가. 교탁 위의 독재자는 아닌가. 동국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에서 얼마나 주체적인가.

③ 행정부문, 21세기 전문경영시대에 대비하여 대학행정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행정경영 평가는 왜 안되고 있나. 교육의 기간을 담당하는 중요부문으로서 21세기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활동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④ 동문, 왜 그렇게 동국에 대한 감정이 시니컬한가. 시니컬한 감정의 근원은 어디인가. 자기부정이 아닌가. 동국발전의 큰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그 전제인 동국-동문간 호혜적 관계의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만 모교의 자비로운 은혜를 받을 것 아닌가.

이러한 반성과 실천 속에서 동국발전의 판판소리는 새로운 동국민족주의의 탄생을 필 것이다. 위의 문제제기가 심화·확산되어 신선한 대안들이 제시, 비전있는 동국민족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황 의 서

(정의 85쪽 정의와 감사)

### 조대 사진

## 내일을 꿈꾸며

권성훈 (경성대 경제학과)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 2603491, press11)

### 폐관전 청소 도서관 이용 학생 불편

나는 거의 매일 밤 폐관 시간까지 도서관을 이용한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기분이 개운하지 못함을 어쩔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저녁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면 10시쯤에 청소하는 아저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와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비닐 봉투를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거슬린다. 그러면서 빈 좌석을 정리한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대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청소하는데 그 날 걸레질이 아니라 석유를 적신 걸레질이란다. 그래서 바닥을 닦을 때 석유 냄새가 도서관을 진동한다. 골치가 아파 오면서 냄새 때문에 숨쉬는 게 어려워진다. 책을 읽다가도 신경질이 난다. 지금까지 읽어 왔던 내용에 대한 흐름을 잃게 된다. 석유 냄새를 참으면서 계속 책을 읽고 있으면 11시20분쯤에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경고를 받는다. 그리고는 불을 꺼 버린다. 그러면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온다. 도서관에는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공부 시간 도중에 청소를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도서관 청소는 물론 필요하다. 그렇지만 청소는 도서관에서 사람이 다니다 다음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수업 시간 도중에 강의실 청소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도서관의 폐관 시간이 늦은 저녁이라는 것이 조기(조) 청소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도서관 운영 관계자가 도서관 청소를 폐관후에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그리고 학교 내에 건물 개폐관 시간과 관련지어 관계자들에게 한가지를 더 바라고 싶다. 도서관과 각 단과대 교사 개폐관 시간 및 명목의 운용 규정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각 건물 출입구에 명시했으면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건물 관계자에 의해 강제 출퇴근 당하는 실용(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류재영

(공과대 산업공학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특집면 내용 부실

지난호 동대신문(제1158호)에 선 본교 경주캠퍼스 개교 16주년, 캠퍼스 승격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사가 4면에 걸쳐 실렸다. 특집좌담, 기획실문 등 많은 기사가 실렸으나 내용면에서 빈약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내용을 통일이라도 했는지 학교측은 경주캠퍼스의 발전을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고, 학생은 한결 같은 불만, 동문생애의 글은 추억은 아릅답다는 내용으로 양은 많으나 내용은 다각적이지 못했다. 내용도 완전 경주캠퍼스에 국한시키고 있어 서울캠퍼스에 이질감을 주고 있으며 서울캠퍼스 교류현황이나 계획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제1면의 교수동정란에서 권기중(법학과) 교수의 학술발표 주제가 해석없이 그대로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학생은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해석을 옆에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김정식

(공과대 산업공학과·본사 모니터)

가방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온다. 도서관에는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공부 시간 도중에 청소를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도서관 청소는 물론 필요하다. 그렇지만 청소는 도서관에서 사람이 다니다 다음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수업 시간 도중에 강의실 청소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도서관의 폐관 시간이 늦은 저녁이라는 것이 조기(조) 청소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도서관 운영 관계자가 도서관 청소를 폐관후에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그리고 학교 내에 건물 개폐관 시간과 관련지어 관계자들에게 한가지를 더 바라고 싶다. 도서관과 각 단과대 교사 개폐관 시간 및 명목의 운용 규정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각 건물 출입구에 명시했으면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건물 관계자에 의해 강제 출퇴근 당하는 실용(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류재영

(공과대 산업공학과)

###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삶이 가지는 책임감을 실천없이 뱉어냈던 말이 남긴 부끄러움으로 가을이 깊어간다. 이같은 자칫 감정에 치우쳐 우울해져 가는 생활 가운데 나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질책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피어오르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덧붙여 너의 생각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며칠전 MBC에스트극장이란 프로그램에서 “죽이는 종이 많다”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본적이 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주인공인 이복형제 가운데 형은, 동생에 대한 어릴적부터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현실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삶에 대한 생각은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가정의 직무에 짓눌려 생활에 파고들 수 없는 현실과 사이다이다. (교육문제에 관한 얘기를 전혀 없었다) 동생은 서울대학을 다녔고 서른을 넘은 나이, 운동권 출신으로서 수배중에 여기저기를 떠돌다 오랬만에 형의 집에까지 오게 된다.

사건은 형의 아내가 시동생의 순진함과 사람됨을 받고 시동생이 수배중임을 알고선 그의 고민과 힘든 생활에 동정과 존경을 보내면서 형이 겪게 되는 질투와 다소 소

심하기까지 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간다.

형님 내외의 부부싸움을 화해시키고 떠나려는 동생을 형은 결국 경찰에 신고해 버린다. 뒤늦게 후회하며 탈출을 도와 함께 도망을 가다가 뒤로 쳐져 붙잡혀버린 동생을, 애절하게 형을 부르는 동생을 숨어서만 지켜보며 눈물짓는 형의 모습으로 극이 끝나게 된다.

이런 대화가 있다. 아니, 자신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가족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나는 다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형의 항변에 가깝다.

“네 왜 그리 도덕적이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도 없이 왜 그리 초월할 수 있는가?” 동생의 대답, “여기에 너의 시선을 모으고 싶다”

“날 용서해 줘요”  
용서, 용서, 용서.

동생만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잘 살아갔을 형에 대한 죄스러움일까? 최소한 그랬을 모든 우리에게 용서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일이 그 자리를 대신 하게 될까(어때 될 것인가)

“Should”와 “Be”를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Be의 모습을 Should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또는

Should를 언제나 미래형으로 나의 능력 너머의 것으로 회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죄다. 이 평위에 뿌려진 역사의 소중한 씨앗들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역사에 대한 믿을 열정으로 뜨거웠던 지난 모습을 생각한다.

잊혀져선 안될 식어버려선 안될 소중한 마음을 이성과 감성 의지의 싸움으로 지켜나가는 싸움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사랑하기를 하고 싶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왜이리 살벌하고 무서운지, 그래서 가슴 따뜻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박노해 시인의 “그대 나 죽거든” (참된 시작가운데)이라는 사랑시로 대신한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리라 확신한다.

구동훈

(상경대 경영과)

### 참된 학생회 건설위해 학우 관심 있어야

올 한해 동양의 일반 학우들의 모습에서 나는 언제나 문제점으로 제기되던 학생회 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비참여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고, 참된 학생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학우들 자신들에 의해 조직된 학생회를 스스로 외면해 버리는 학우, 학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지 못한채 학우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학생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동양의 현실이다.

이런 결과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보면 학생회 조직의 형성 즉 선거에 있다. 기조나 공약사업은 커녕 후보자 신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인맥을 통한 무의식적인 권력행사 심지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냐? 현실에서 학생회의 공약은 공허해질 수 밖에 없고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학생회로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금 각 단과대에서는 선거를 진행중인데 학우들의 무관심속에서는 진정한 단과대 학생회의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학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있을 때 학생회 또한 학우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우와 학생회 사이의 무관심은 이번 선거를 통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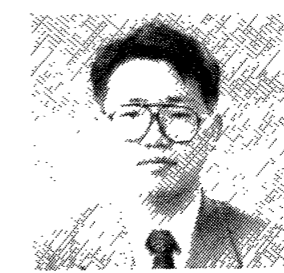
강두한

(농과대 농업경제학과)

### 동/문/칼/럼

백두산을 다녀와서

## “우리 하나되게 하소서”



김영식 (경향신문 94쪽)

이구나! 장백폭포 1km앞에 지프차가 도착하니 극성스러운 상인들이 침입해 버렸다. 하지만 내마음은 벌써 저 장백폭포 너머 천지에 가 있는데...

장백폭포의 물소리가 고막을 찢듯 울려오고 그아래 흘러내린 백옥색의 물이 큰 내를 이루고 있다. 폭포옆 절벽길을 아스라히 오르니 천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요히 흘러오고 있다. 그 열음같이 차가운 물을 한음큼 집어 입에 넣어본다. 달다. 설레임과 조바심에 뒤늦게 걸음을 옮기길 잠깐, 드디어 하늘과 맞닿은 천지가 신비스럽게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내 가슴도 환하게 열린다. 천

지를 둘러싼 봉우리엔 구름이 걸리고 천지엔 가끔씩 제법 큰 물고기가 뜬다. 저 건너편 북백령쪽엔 행한 초산만 보일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저 봉우리 넘어 북백령을 바라만 보고 싶는데 화산적인 봉우리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 보인다. 주위엔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조선족 교포내외의 친지 촬영이 더없이 정겨워 보이고 천지에 동전을 집어 던지는 중국인들...

이 천지만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의 한(恨), 기상, 기개... 갑자기 내귀엔 한맺힌 외침이 들려온다. 이들이 저 봉우리 사이를 흘러내려 암벽길을 만들데고 이곳도 예전엔 우리의 땅이지 않았던가? 서서히 목엔 한기가 담겨오고 사람들도 하나둘 산 아래를 향한다. 나의 한도 이제 가슴에 묻고 떠나야 할때다. 천지에 두손을 펼친다. 차다. 마지막으로 나는 엄연해 본다. '이제 우리 하나되게 하소서'

장백폭포의 물소리가 고막을 찢듯 울려오고 그아래 흘러내린 백옥색의 물이 큰 내를 이루고 있다. 폭포옆 절벽길을 아스라히 오르니 천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요히 흘러오고 있다. 그 열음같이 차가운 물을 한음큼 집어 입에 넣어본다. 달다. 설레임과 조바심에 뒤늦게 걸음을 옮기길 잠깐, 드디어 하늘과 맞닿은 천지가 신비스럽게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내 가슴도 환하게 열린다. 천

지를 둘러싼 봉우리엔 구름이 걸리고 천지엔 가끔씩 제법 큰 물고기가 뜬다. 저 건너편 북백령쪽엔 행한 초산만 보일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저 봉우리 넘어 북백령을 바라만 보고 싶는데 화산적인 봉우리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 보인다. 주위엔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조선족 교포내외의 친지 촬영이 더없이 정겨워 보이고 천지에 동전을 집어 던지는 중국인들...

### 목 먹 골

무 축하하며 더욱 예쁜 모습을 보게 되기를  
- 손짓사랑의 사랑동이

■영성이 생일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사랑한다고요.  
- 디딤돌

### 축하합니다

■윤균이 형의 취직을 축하합니다.  
- 종민

■안희장과 이흥무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화이팅!  
- E&M

■늦었지만 우리 이쁜 나영이 생일 축하해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커서 지고 대들보가 되길.  
- 지교 94

■경아야 생일축하한다. 항상 맑게, 건강하게 지내렴  
- 역교93

■미연야 생일축하한다.  
- 연

■생일 축하한다. 화곤  
- HR

■26일 이경희, 28일 한기숙, 29일 신수진, 30일 임주미 생일을 축하해요. 분이 없어 선물대신 이걸 쓰는 날 용서해줘  
- 췌-췌인

■10월25일 윤경이의 생일을 너

■10월26일 탐의 가을 정기공연을 무지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이리랍일동

■윤희야 생일 축하해! 마니 행복해라.  
- 東國書道會동기가

■동영야 10월21일 생일을 뽀뽀해! 축하한다. 행복추지 못해서 미안하구  
- 검도부 친구가

■하이텔내 동국대 통신 동호회 개설을 위해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하이텔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니신타오로 메일 주세요.  
- 최은혁

■28일 5시 불상 앞에서 배서문 동문회가 있습니다. 달님 참석해서 도영이형 일로고 말대 줍시다. 내 밑으로 다 나오기를 기대하며...  
- 32기 L·T·Y

■서관동문회가 10월28일 금요일 5시에 만해시비에서 모입니다.  
- 최장

■11월 둘째주에 있을 예정인 모교의 동문회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대부고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대부고 임시회장

■11월6일은 동국서도회 탁본대회 가는 날입니다. 선배님을 많이와 주셔서 귀여운 후배들과 좋은 시간 가져 주세요!!  
- 東國書道會

■11월28일 창원 친추회 모임 중길, 세혁이, 재원이 선물이 다들 나와라.  
- 최장

■메일 저녁 간식으로 커피라면하고 초코파이하고 삶은 계란만 먹는 "東大운동부"학교에서 대책 좀 세워주세요  
- 시공과 84

### 동/악/광/장

### 그리고...

■박동현 학생의 승리를 기원하며...  
- 빛돌이

■애들이,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큰물로 향하는 길을 모두 힘내자.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4학년을 받아들이자구나  
- 수교과 4학년

■힘들고 지쳐보이는 내 풍기를 (졸업기 포함)! 힘내라 힘!  
- N-D

■동양에서 제일 잘나가는 미림. 남강이 11월에 이순 동문 카니발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 남강19기 P·S·W

■농학과 93회졸의 귀환잔치(10월24일)를 축하하며.  
- Boss'sfan Club+ 여학생- 同

■교육학과 여러분 내일과 모레(27·28일)이틀동안 투표 기간이지 아니죠. 이번 선거에 많이많이 참석해 주세요  
- 교목 94홍·조

### 은방골

### 축하합니다

■원희랑 선배! 200일 축하해.  
- ?

■사·복과 93학번 일동중 C·T일동중 수희와 성연이가 "윤경"이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 9기 전남자

■우리 이쁜이 정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 사랑하는 J·E

■현희의 연인(lover)이자 愛인 정민이의 생일. 경에서의 4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 가발셋

■한희대 품올레 "훈올" 5회정기 공연 무사히 마친것을 축하하며  
- 공연끝내고 눈물줄인 선배가

■자기 회장단 당선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바랍니다.  
- Youth- J·C 회장

■민영이형 생신, 현주생일축하!

■대구 대경원-송현 동문 여러분! 졸업완성검 페스티벌이 11월5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비 2만 원 꼭 준비합니다.  
- 열원현 동문회

■소낙비가 동아리방을 옮기며 이달밤에 교사를 지냅니다. 소낙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소낙비 6기

■회비 미납한 회원님들, 명단 발표하기전에 빨리 내주세요!!  
- 후후후 15기 신배

■사회복지학과 학우여러분 열심히 학습제 준비하시고요 아울러 10월28일 있는 사론회에도 성원해 주세요.  
- 피파가

■수목 형님 10월말에 시험 잘치세요.  
- 정 훈

■"가르침" (봉·동과내 동아리) 언니를, 공원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요.  
- 명주-원정

■한희회 94년을 맞아 졸업생환송회를 개최합니다. 꼭 참석하시고요. 졸업생선배님들 축하해요. 94년 10월30일  
- 집행부 일동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모디"의 베이시스트 현동이가 11월7일에 임대한테요. 현동아! 잘 다녀와.  
- '모디'의 현동이가

# 범죄 사건 보도와 공정한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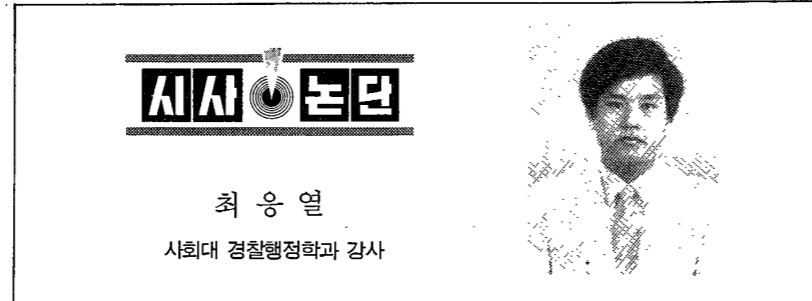
## 국민피눈물 자양분삼는 탐관 속칭해야

김영삼대통령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유세 때 "우리의 누이와 딸들이 마음놓고 밤길을 걸게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울해 들어서만 5인조 때강도 사건으로 연초부터 사회를 불안하게 하더니 급기야는 '지존과 살인사건' '인천북구청세금횡령사건' '법정중인가족보복 살인사건' 등으로 잔혹범죄가 연일 신문지면과 TV화면에 가득 한걸 보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무색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자 매스컴에서는 앞다투어 그 원인을 황금만능주의, 사회적 약탈감, 한당주의, 도덕불감증, 군사문화의 폐단, 정신병자에 의한 소행 등 그 진단 또한 오락가락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과 처방에 우선하여 필자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매스컴의 보도태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사회가 조용하다가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각 방송 및 언론에서 흥미위주로 범행장면 등을 재연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흉악사건은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발생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회에 범죄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지난 1982년 부고한 양민 62명을 살해하고 33명에게 부상을 입힌 우범곤순경사건이나 1975년 의안 민가만을 찾아다니며 학거지 못하는 노인과 어린이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김대두사건, 1992년 미국에서 일어난 유색인 청소년 15명을 연쇄적으로 트라사해한 20세기 최대의 살인마 제프리다머사건들이 이를 잘대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어떤 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 매스컴에서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매스컴에서는 범인들의 진술내용과 잔혹한 범행수법을 아무런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반영·보도하고 있다. 이는 '범죄는 학습된다'는 범죄학의 대가 Edwin H. Sutherland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들이 범행을 하기 전에 보고 읽었다는 '지존무상'이란 비디오와 '야인' '뿔개' 등의 소설이 청소년들 사이에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명하다고 본다. 체계적 어디서는 어떤



최 응 열  
사회대 경찰행정학과 강사

무기를 살 수 있고, 살해방식·장소선정 등 모든게 여과없이 안방까지 전달되는 모방범죄가 안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취 의도도 없이 앉았지만 매스컴에서는 서로 질세라 경쟁적으로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내보내고 있고 폭력비디오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의 열거적으로 살해모습과 '지존무상'이란 영화에서 나오는 범행수법을 연일 보도한 것은 모방범죄가 강한 청소년들이 각종 범행수법을 일삼리에 배우게 하는 역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보도태도는 어떤면 명분으로도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사회를 비롯듯한 조소의 발언,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당당한 흉악범들의 자세를 TV를 통해 보도하는 것은 가치관의 전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보도가 쌓여진으로써 범죄에 대한 무감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영국 BBC방송의 '프로듀서 지침'에 범인이 잘못을 과장하거나 사회주의를 비웃도록 해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은 우리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한편 형사피의자들도 헌법취지에 따라 유죄판결확정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 받을 거라니 확정시절의 성격은 어떠했다 등 우리 언론에서는 이들 범죄자에 대해서 미리 재판까지 다 해치워버리는 사법부의 역할까지도 자랑스럽게(?) 수행하고 있다. 이는 영미 등 선진국의 신문에서 '존슨씨'는 어찌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당국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범죄자전과 피의자를 위급하는 기사들과 아주 대

조적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는 지존파사건과 인천북구청세무비리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와 당국의 태도에 천양지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크 큰 큰 병폐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대법원의 '양형실태'에 관한 분석에서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이 사기, 강도죄, 절도죄, 횡령죄등 다른 범죄에 비해 낮고 집행유예율이 높다는 발표는 뇌물죄에 대해서는만은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지존파사건 등 인간의 생명과 체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그 이면에는 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러한 처벌을 받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느낌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복수심이 잘 표출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이들 흉악범에 대해서는 범죄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각종 처벌해야 한다는 언론의 덕택으로 범죄에 처벌이 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문민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 10월6일 국제사법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양형 15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무비리사건이나 DA건설 등에서 뇌물로 주기 위해 비자금에 조성했다는 기사를 보면 앞의 범죄사건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후자와 같은 범죄는 흔히 White Collar범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불분명한 관계로 복수

심이 전자보다는 덜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를 가진 부류들이 범죄를 범하고 받는 처벌을 보면 뇌물액수나 횡령액수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동안 봉사한 공적(?)이 인정되어 법정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고 조금 지나고 나면 건강이 악화되어 병보석으로 풀어나든지 아니면 형기도 다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의 끈성을 마리 알아채고 아예 외국으로 출행량을 치는게 현실이다. 많은 정·관계인사들이 관련되었던 빠지고 비리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사정차원에서 시달려받게 수사하고 나서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만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니 그러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잘못이 백일하에 들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정치적인 보복이란 말이 들리고, 심지어 뇌우치는 기색은 커녕 TV화면에 등장한 모습이 등장하곤 해서 우리들을 여러중중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용무사 미력의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고방식도 시간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와는 달리 무감각해지기 예사인데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에 일어난 인천세무비리사건에 대해서 는 가까운 국민들의 시각에도 문제는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자신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자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방만한 국가행정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을 길러 범 시민은 동차원에서 부정비리방지 감시운동을 전개 해야 하며,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갖다 바치거나 탈세하려는 종조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옛날 춘향전에 나오는 "濁澤落時民瀾落이요, 歌聲高處에 怨聲高다(뜻을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성도 높다)"라는 구절처럼 많은 서민들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를 졸라매고 낸 혈세를 자기자신에 호의호식하는데 사용한 것은 국민의 피눈물을 자양분삼아 몸뚱이를 살찌운 글수만도 못한 흉악범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야만 이러한 사건이 뿌리뽑히리라 생각된다.

### 사설

#### 선거의 참모습을 기대하며

금년 2회기는 선거는정도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날듯 하다. 11월 중순까지 각급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치루어지고, 학생선거의 대미를 장식하는 총학생회장 선거가 끝나면 우리대학의 최고책임자인 총장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선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조직에서 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해 주는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발전에 연료를 공급해 주는 정책적 과정으로서의 의미이다.

후보자는 선거를 통한 지지확적으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조직구성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래의 지도자가 할 일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거제도나 선거문화는 어떠한가. 사회가 잘못하면 소리높여 질책하는 대학인들의 선거과정을 보며, 그렇게 나무랐던 정치인들의 행태와 별로 다르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많이 나아졌다지만 수업방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선거유세나 상대방의 잘못만을 강조하는 진부한 운동방식 등 대학선거의 신선함과 거리가 먼 잔재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장직선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학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과정 역시 비합리적 요소가 많은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총장선거를 보면 과열현상은 물론 선거후의 후유증까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총장선거가 이렇게된 데에는 두가지 원인이 있을듯 하다. 하나는 대학선거문화가 너무 '정치적 과정'에 집착하여 표의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측면에서 선거방식이나 선거관리가 너무 경직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의 해결은 전자의 경우 후보자들이 정책대결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정책적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원천적인 제도적 결함을 운영의 묘를 살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근본적 문제라는 것은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데 과연 학내모든 주체들이 나름대로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교수직선시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특성상 투표참가자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가하는 것들을 말한다.

조만간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모든 문제는 선관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선거과정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 선관위란 점을 고려할때, 선관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거가 치루어 지도록 책임져야 하며 동시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축제분위기가 속에서 선거가 치루어지도록 포용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대학선거의 참모습을 기대한다.

### 동국만평

박현진



승객 여러분 안심하세요. 다리를 건넌답니다.

### 대학순위보도와 종합평가 인정제

흔히들 지금의 시기를 대학의 준폐가 달린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또 그와 맞물려 돌아오는 대학 자율화 정책과 국가의 지원, 이어지는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 진학 생수의 감소는 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언론에서는 자의적인 '대학성적표'를 만들어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대

학의 외형적인 여건을 지표로한 교육여건 지표를 규정감사기간에 공개해 일부대학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보도에 반발하며 외면하고 있을수만 없다. 이러한 발표에서 부정적인 면이 드러났다면 이에대한 처우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95학년도에 치루될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21세기 민족사학으로 우리학교의 위상을

만들어 가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본사에서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5일까지 6회에 걸쳐 '중앙일보'에 보도된 "대학 순위 바뀌고 있다"의 내용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대학 종합평가인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이에대한 학교당국의 대응책과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우선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월한 교육여건' △연구비 △재정운용 △졸업생 사회진출 현황 등이었으며 이는 상당부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종합평가인정제 평가항목과 유사하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우리학교는 졸업생 사회진출이외의 부분에서는 과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중앙일보의 평가가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지느냐와 중앙일보의 평가방식과는 다소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방식에서 우리학교의 위치를 어떻게 평가받는다는 미지수이나 아무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은 그 어

자율화 한국의 결실을 만든 사람들  
 공생협력의 신뢰를 얻어온 사람들  
 첨단도체 기술에 도전하는 사람들  
 더 나은 결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현대자동차**  
세계 29개국 총 300만대 수출

**현대건설**  
세계 29개국 총 250억 달러 공사 완공  
건설도급순위 1위

**현대전자**  
연간 매출성장률 1위  
2000년 세계 10대 우량기업대상 목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93년 매출액 대비 공익투자 1위  
(총 누계 2,615억원)

## 18만 現代人의 참모습입니다.

그들은 크게 사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기간산업에 온 힘을 쏟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큰 일꾼입니다.

그들은 넓게 사는 사람입니다.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무기로 세계 176개국과 교역 HYUNDAI, KOREA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국제화의 기수입니다.

그들은 깊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들이 맺은 넉넉한 결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실현기 위해 그들, 18만 現代人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특집 인터뷰 - 황명수 총동창회장을 만나

# 동문, 학교발전 주체...동발협구성등 모교 위해 노력

## 동창회 장학사업 준비중·'하늘에 핀 녹두꽃'공연으로 2억원 재원 마련

총동창회가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동국발전위원회로부터 시작한 동창회의 활발한 활동은 올해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문화공연 '하늘에 핀 녹두꽃'으로 구체화되었고 지난해 있었던 동국인 체육대회로 동문들의 결속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활발한 동창회 활동과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황명수 총동창회장을 만나 그간 진행돼온 동창회 사업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 동창회 사업부분

- 지난 1년간 동안 총동창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면.

= 주위의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었던 아쉬웠던 점은 다소간 없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열심히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동문사회에서 동창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 국적은 바뀔 수 있어도 학적은 바뀔 수 없듯이 학적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 개인은 동창회원이며 동창회는 언제나 동문과 모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동문사회에 있어 동창회의 비중은 동창회의 주인이 10만 동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보다 자명해 질 것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인 비종교자 무탈할 나위가 없을 테지요. 동창회의 비중은 동문 스스로가 만들고 가꾸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 사무국의 역할과 책임을 진 저나 동창회 실무 관계자들이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야겠지요.

-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 동창회 사업의 처음과 끝에 있는 것이 조직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구조입니다. 상하, 좌우간 긴밀하게 짜여진 인적 네트워크가 동창회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점을 지시하고 취임초부터 각시, 군단위와 지역별, 직장별, 기법, 과별 등 각 단위조직의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여 서로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단위조직문화의 창립과 발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동국인체육대회는 동창회 활성화에 좋은 방법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현재 10만 동문의 기록인 동국인명록 7집 발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큰 난제인 일반회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창 회관 건립도 추진해 총동창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갈 것입니다.

- 동창회 장학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정도나 앞으로의 계획은.

= 본인의 취임공약이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인 만큼 임기중에 반드시 이뤄낼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난 7월 전국의 대학동창회 사상 최초로 문화 이벤트 사업의 개념을 도입해 시행한 창극 '하늘에 핀 녹두꽃'의 공연을 통해 2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기존의 장학기금을 포함해 장학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단회의를 통해 장학재단의 정관을 만들고 현재 시교유위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재단설립을 마치고 이후 국내외 동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또한 본인은 모교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동문이라는 이름은 누구라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라면.

= 우선 장학재단 설립이 우선이었지요. 그러면 기금 모음이 좀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동문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순회공연도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악을 가지고 일본등 해외공연도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 재학생의 총동창회 임의회 남부거부에 대한 동창회의 입장은.

= 옳은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재학생후배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근거가 동국대학교인데 동문과 모교와 동창회를 위한 기본적 의무인 회비납부를 단체행동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지요.

다소간 동창회에 불만이 있으면 대화와 참여로서 오해를 풀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순서겠지요. 본인은 동창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그 내용을 따져 잘못된 점이 있을 때 분명히 시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남부한 그 회비는 분명 명목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배, 그리고 모교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 질문외에 동창회 사업과 관련해 하고싶은 말은.

= 어린이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신 동문들이 어디서건 성공한 사회인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좋은 어렵든 언젠가 한모습으로 열성적인 동문이 결국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창회는 저 개인이나 사무국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재학생 여러분은 물론이고 동문모두가 구성주체이고 주인입니다. 내집같이 동창회를 찾고 어려운 점을 상의하고 기본일은 다같이 기쁘고 해야 합니다.

모두가 내일같이 참여할때 진정한 동창회가 동문사회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발전부분

- 동창회에서 바라보는 학교 발전의 상이라면.

= 국민들이 사랑하는 대학,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천방안으로서는 시설의 현대화, 국제 경쟁력있는 우수 교원 확보, 자질 우수한 학생선발, 유능한 인재 사회배출등이 우리 동국대학교가 발전해야 할 상이라고 봅니다.

- 학교의 발전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문들이 학교발전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 종전의 얘기처럼 동문도 학교발전의 한 주체입니다. 학교행정에 대해 이리저리 저러쯤 얘기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학교발전 계획단에서 동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동국발전협의회는 바로 이러한 방향성의 제시를 위한 학교와 재단과 동창회의 3자협의 기구이고 방향이 수립되면 동문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정책적인 부분은 정치계에 있는 동문들이 풀수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면은 경제계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우수한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 학교 발전기금 조성, 교수의 연구비 지원, 교수 교직원 총동창회와 유대감화, 졸업생 취업안내, 동국발전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한 동창회의 노력이라면.

= 우선 종전에 얘기한 동국발전협의회가 있고 기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교, 재단과의 채널을 가동해 항상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칙에 의거 재단에 파견된 재단이사들이 모교발전에 대한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등 모교발전을 위해 분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부터 총장님 이사장님과 함께 동국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국발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논의된 내용들은.

= 동국발전협의회는 재단과 모교당국 그리고 동창회간의 3자협의기구입니다. 동국발전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협의해 의결된 사항을 재단이사장, 총장, 동창회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6인, 재단 3인, 동창회 5인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 3권력스신설확정에 대한 활발한 협의와 일부 시행된 작업이 그 대표적 내용입니다.

- 질문외에 학교발전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은.

= 재단이든, 학교든, 학생이든, 동문이든 모두가 학교발전의 주체임을 깨닫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가 변화된 만큼 변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단체의 구성체 전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쉽지 않습니다.

집행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구성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며 그래야만 학교발전의 속도와 힘이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학내현안문제부분

- 현재 학내에는 향후 4년간 동국을 이끌 어갈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각 주체들의 움직임이 부산한데 대학총장의 위상이라면.

= 글썽요. 다소 민감한 사안인데 같은데 사견을 전제해라 했지요. 총장 선출도 학교행정의 일부분이기요. 우선적으로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국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회생과 각 구성 주체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추진력있는 분이든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동창회에서 생각하는 올바른 총장 선출방식이라면.

=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학내구성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거라 봅니다.

- 마지막으로 학내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먼저 재학생 후배여러분은 거시적 안목과 개인 능력의 극대화를 먼저 당부 드립니다. 현재는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며 하나의 경쟁터입니다. 누가 멀리보고 누가 더 빨리 행동에 옮기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무한 경쟁의 이시대에 재학생 후배 여러분은 거시적 안목과 능력의 극대화로 오늘의 토양을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토학내구성원들이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은 연구활동과 강의로, 재학생은 부단한 학업정진으로, 학교당국은 학생행정에 대한 최선의 노력으로, 재단은 이를 뒷받침하는 최선의 노력으로 모교의 위상을 재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는 학교발전의 모나나 주체임을 각인하고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지난해부터 총장님 이사장님과 함께 동국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국발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논의된 내용들은.

= 동국발전협의회는 재단과 모교당국 그리고 동창회간의 3자협의기구입니다. 동국발전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협의해 의결된 사항을 재단이사장, 총장, 동창회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6인, 재단 3인, 동창회 5인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 3권력스신설확정에 대한 활발한 협의와 일부 시행된 작업이 그 대표적 내용입니다.

- 질문외에 학교발전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은.

= 재단이든, 학교든, 학생이든, 동문이든 모두가 학교발전의 주체임을 깨닫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가 변화된 만큼 변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단체의 구성체 전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쉽지 않습니다.

집행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구성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며 그래야만 학교발전의 속도와 힘이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사 초점 '성수대교 붕괴'

### 단순한 다리부실 아닌 '나라부실'

'성수대교 붕괴참사' 다시한번 국민들의 시선을 연일 TV제널 앞에 고정시키며 사건의 전모를 캐내야 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람자 32명 부상자20명이상 대참사이다. 어느 국회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부실공사는 지존파보다 더 큰 범죄'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사건이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던날 외신에서도 일제히 있을 수 없는일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들 또한 '뭐 이런나라가 다 있냐'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보자. 이원중 서울시장 사퇴, 이영덕 국무총리 사표 제출했으나 반년 '재수없는' 몇 사람만을 문책한후 민심을 추스리려 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상판의 떠받치는 연결편과 수직재 사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밝혀지며 애초시공을 맡았던 D.A.건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성수대교만 부실 공사를



했을까 없다. 다른 다리들에 대한 '경고장'도 이미 나온 상태이다.

이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선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면서 감경대에 대처하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는 단순한 다리공사의 부실이 아닌 나라의 '부실'을 뜻한다. 그 부실의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때이다. (사회부)

## 동악로 전산터미널 OFF

지난9월2일 각 단과대 건물과 도서관, 학생회관등에 학생용 전산터미널이 설치되었다.

이 전산터미널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강의시간, 강의실, 담당교수 확인, 학생 주소 확인, 취업정보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제반정보들이며 학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건물의 입구에 설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전산터미널은 그저 건물 공간을 차지하거나 장식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나쳐가던 학생들이 무심코 단말기에 ON스위치를 건드려 보고는 별의미 없는 영어뿐만 가득한 화면에 질려 OFF스위치를 찾기 바쁘다.

"사용설명서라도 있으면 해보거나 알텐데 그런건 없고 엔터키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지나치는 사람, "이건 학생들이 서로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컴퓨터 약속안인 것 같다"고 추측하는 사람들 반응은 여러가지다.

학생과 한 관계자는 "도난방지 시스템이 완벽히 설치되지 않아 모뎀운동

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얼마전 동국관에서는 이 전산터미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말기 뿐만 아니라 설치대까지 모두 가져가 버린 웃지못할 사건이 생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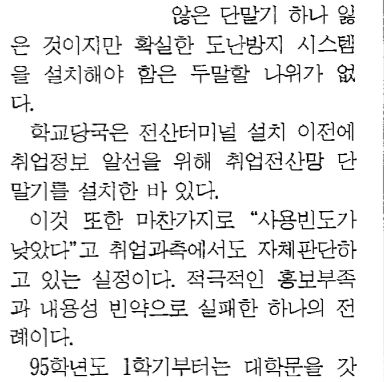
이 도난사건이야 아무것도 내장되지 않은 단말기 하나 없을 수도 있다. 확실한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교당국은 전산터미널 설치 이전에 취업정보 알선을 위해 취업전선만 단말기를 설치한 바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빈도가 낮았다"고 취업과측에서도 자체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극적인 홍보부족과 내용성 빈약으로 실패한 하나의 전례이다.

95학년도 1학기부터는 대학문을 갖는 신입생들이 전산터미널을 통해 강의실도 확인하고 총학생회 행사가 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줄을 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유리 기자)



POSCO 메세지 대동제

## 우렁찬 함성속에 되새긴 대동의 의미

모두가 함께 한다는 의미의 대동—  
편견과 작은 이익에 치우쳐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작은 우리의 모습(小我)을 벗어 버리고 보다 성숙된 자아(大我)를 되찾기 위해 우리의 속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화 문화의 전수를 맛 볼 수 있도록—  
예비 사회인으로서 그 의미를 살려 볼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젊음의 기상과 고쳐하는 지성인의 참다운 모습이 어우러진  
대동제에서 한층 커져 버린 또 하나의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 포항제철

### 심층기획 — 교육시장 개방으로 살아남을 길 ... 학과 통폐합논란

#### 첫 번째 — 학부제·학군제 등 학과 통폐합 의미

## 폐쇄성 극복위해 광역형교육과정 통폐합 필요

### 현행 학과 편제, 교과과정 편성·운영 문제점 노출·교수 인습적사고 작용

대학평가제도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대학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개혁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계속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한국의 대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학의 자체적 노력의 결합으로 보다 내실화된 교육연구 및 봉사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어 국가발전과 사회진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고도의 사회적 적합성을 지닌 대학으로 변모하면서 여러 가지 그것을 위한 조건들을 정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의 하나로써 이 글에서는 대학의 학과통폐합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기구편제는 일반교양과 기본과학부문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부와 직업전문교육을 위주로 하는 단과대학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대체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기본과학과 공대, 경상대 등 전문교육이 병존된 단과대학으로 학과가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기구편제는 학부와 직업전문교육이 이원화된 미국과 독일 등 여타 나라와 비교해 볼때, 학과의 중복을 피하고 교수들 전공별로 배치한 점에서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교육기구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학과의 편제는 새로운 학문적 조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두가지로 압축되어 설명되어진다.

첫째, 학부의 전공과정이 학과단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더우기 교수들의 전공영역에 따라 전문화되고 있는 현상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는 곧 전공교육의 폭과 깊이의 조화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의 획일적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학과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문화 성향에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학제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종적 계열화와 관련된 교육 내용의 학문적 적절성, 학문의 개념수준에 따른 위계구조, 석·박사과정과의 연계 문제들도 충분한 연구·검토없이 학과편제에 따른 행정적 편의와 교수들의 관행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공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부전공, 복수전공제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식의 구조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학문의 전문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폭넓은 학문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가 활성화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의 경직성과 사회로부터의 인식부족등도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현재의 편향된 학과중심의 전공제에 연연하는 교수들의 인습적 사고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각국의 대학체제운영의 특징은 학문의 계열에 기초한 광역형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과 사이의 장벽과 폐쇄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폐쇄적인 학과중심 교육과정의 운영방식에서 학문 상호간의 유대성과 공동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육과정의 운영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성은 종합대학 내의 각 단과대학의 고립화와 단과대학 내에서 각 전공학과간의 고립 및 폐쇄성을 방지하게 된다.

이제 더이상 한 학과가 그 자체로서 교육과정의 종적 계열화를 지향하는 것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광역형 교육과정으로서 개방적인 학과통폐합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다 신속성 있고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학과통폐합은 대학의 제도와 그 운영에서 지금과 같은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한 학문의 개방적 협력체제를 기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과통폐합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과 통폐합은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공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지적 적응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학과통폐합은 보다 신속성 있는 인력수요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과통폐합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경험은 폐쇄적 전문화에 따르는 지적 고립을 극복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급인력수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학과통폐합은 교수진의 효율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학문의 발전은 학제간의 공동영역이 적지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학제적 영역에 대하여 학과 통폐합은 기존 교수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학과통폐합에 대하여 지나간 역사는 반성함으로써 그것의 역기능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각 대학이 다양하고 학과 역시 그 역사와 배경, 그 구성과 활동실적 등에 있어서 천차만별임을 생각할 때 학과통폐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날 1960년대 대학정비시 학과통폐합의 방법이었던 반드시 유유증이 있을 것이며, 잘못하면 대학기능의 활성화를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정진환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 두 번째 — 타대학 실태



### 서울·한양등, 학부제 운영 난항

### 학생 요구 수렴...합리적 논의 필요

요즘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학교측과 학생측의 의견 대립으로 골살을 앓고 있다.

몇년 전부터 거론돼 왔던 유사학과 통폐합 즉, 대학의 학부제 운영이 9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일부 대학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에는 이년전부터 '학부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다음 해인 92년부터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를 전기·전자·제어공학군으로 통합하여 신입생을 모집,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학부제에 대한 제도적 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제시행안'을 발표, 이에 따라 그동안 학부제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던 단체들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학부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학과군은 95년도부터 학과군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대도 수리정보학부, 물리학과,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등 5개 학부와 2개과로 통폐합,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사회대, 인문대, 농생대도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한양대의 경우도 공대의 20개 학과를 건축공학과, 전자전통통신공학과, 재료금속공학과, 기계정보기설자동차공학과, 화학공학세라믹실용공학과군 그리고 통합에서 제외된 도시과, 토목과, 전기과, 자원과, 원공과, 산공과 등 1개 공학부와 4개 공학과 그리고 6개 학과로 계열별 통합할 것을 밝혔다.

경명학과와 회계학과가 이미 통합된 경복대의 경우도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농화학학과와 식품공학과, 농공학과와 식품기계공학과, 전자 전기 기계 기계설비학과를 통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학과통폐합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학과통폐합이 논의, 결정된 주원인은 교육부가 지난 88년부터 대학정원 조정 지침을 통해 권장해 오던 것이 올해 7월에는 '학과통합'의 정책 대

정책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UR의 여파로 인한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목적이며 논의되고 있는 학과통폐합은 학문의 질적발전과 대학인이 갖추어야 할 폭넓은 교양공부가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과통폐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근본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생들과 사전협의 없이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학교측에 공개토론회요구, 의견제출운동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양대 공대 학생회도 역시 학교측의 일방적인 학과통폐합결정에 반발, 총장실 점거농성, 공대 정·부학생회장의 무기한 단식, 통합대상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는등 논란을 빚고 있다.

또 학부제의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부제의 기본방향과는 달리 학과 학부의 병존으로 인해 전공과목을 줄이고 교양과 전공기초과목을 폭넓게 교육한다는 학부제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전공필수과목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학과에 속한 서울대의 한 학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부담으로 다른 공부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2학년까지 기초전공과목을 배우고 3, 4학년때 전문분야를 선택하는데 있어 일부 인기과나 취직이 잘 되는 과로 몰리는 것, 교수들이 기초교육을 담당강의시 자기전문과목을 확보하려는 이기주의가 생길 수 있는 것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정발로 학부제를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즉흥적인 아닌 장기적인 걸친 연구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점을 주시하고 학생들과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변대용 기자)

#### 세 번째 — 우리 대학은 현재 어디까지...

## 96학년도 계열별 신입생 유치위해 연구위 발족 전산통계학군 시작... 내년까지 세부계획 완료

"우리학교도 서울대학처럼 유사학과를 묶어서 계열화시키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과는 어느과랑 합쳐지게 되는거야?" UR의 파도를 타고 불어닥친 교육개혁의 강풍에 대비해 각 대학마다 '살아남기' 정책을 고민하는 요즘, 서울대학을 비롯 한 여러 대학에서 유사학과 통폐합 바람이 불고 있다.

본교도 얼마전 전산통계학과와 전산과 학과의 통합정책에 따라 이 '비밀'의 열항권 아래에 속하게 되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여행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88년부터 대학정원조정 지침을 통해 각 대학에 유사학과 통폐합을 권장하고 올 7월에는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대 전환 추진계획'을 전국 대학에 내려보냈다. 학과의 전문성을 살려 전공을 통한 학문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이며 지난 84년부터 전국 대학에 유행한 학과별 세

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서울대학 및 한양대, 경희대 등 전국 여러 대학에서 학부제 실시 등으로 학과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되고 있다.

본교 또한 처음 의도가 타교와 다른데 95학년도부터 전산통계학군이 야간강좌에 신설됨으로써 학과통합의 출발선을 뒤로한 상태이다.

전산통계학군이 제기된 배경은 올해 야간강좌에 신설된 전산통계학과를 내년도 강제로 통합해야 하며 반대하고 나서자 학교당국이 학생들에게 전산과 통계 두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설하기로 한 전산과회학과 통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산통계학군'을 풀려놓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학생들과 학교당국이 몇차례 대화를 가진 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후속조치가 따를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교는 여기에 편승해 96학년도부터 계열별로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창규(경영학)기초조정실장은 "아직까지 계열별로 학과통합을 하는 것은 결을마 단계에 불과하다"며 "학과통합이 단시일에 결정돼서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학과통합 목표를 더디로 잡을것이니에 따라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밝히면서 유사학과가 계열별로 묶이는 것에 있어 각 과 교수들이 학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 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96학년도부터 계열별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운 본교 연구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차회의를 통해 발족할 예정이다. 학부제보다 포함범위가 작은 학과제 형태가 될지 어떤 계열·정보계열 등의 계열방식으로 학과통합을

하게될지 학과통합의 형식부터 교과과정 개편까지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이 위원회에서 오는 95년 1학기까지 완료할 것이다.

유사학과 통합이후 △전공필수과목 조정을 비롯해 교과목 명칭변화 등 교과과정 개편 △보편성을 띤 일반교양 교육강화 지원책 △졸업이수학점 조정 △복수전공제 실시 △분반문제 및 수업방식 개선 △교수출원 △학생회·행정체제 완비문제 등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낳지는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는 당사자로서의 학생 입장을 고려해 학생들의 의견에 학교는 귀 기울여야 하고 그에 대해 충분한 해설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발전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곽주영기자)

눈높이 사랑 · 눈높이 교육

**“아침이 그날을 알려주듯  
어린이들은 그의 미래를 알려준다”**

— 밀튼 —

어린이는 내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읽습니다.  
꿈과 사랑으로 어린이의 내일을 밝혀주는 일,  
눈높이 교육 대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눈높이교육 대교는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푸른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키를 낮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시작한 대교의 눈높이 사랑 18년 — 이제 대교는 눈높이 수학, 영어, 국어 등의 학습교재에서 어린이를 위한 케어비 TV 대교방송, 꿈과 환상의 에스포르와공원, 그리고 대교 컴퓨터와 대교 출판이 이르기 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세계수준의 총체적 어린이 교육 / 문화 기업을 향한 발걸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눈높이 교육 / 아동문학상, 수학 영재 양성을 위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어린이 과학캠프 등의 각종 행사를 통해 어린이 중심의 문화를 선포하는데 노력해온 눈높이 사랑, 눈높이 교육의 대교 — 앞으로도 대교는 제1의 교육 / 문화 기업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에도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어린이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방송 케어비 TV  
어린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어린이 채널 대교방송에서는 학습, 교양, 오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어린이 문화를 이끌어갑니다.

미래 과학교육의 요람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과학기술의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이와 교육의 학습환경 대전 엑스포아일랜드 과학박물관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엑스피어 월드

눈높이 사랑 · 눈높이 교육

(02)528-0114

눈높이출판 · 눈높이컴퓨터 · 눈높이슈퍼 · 옛날 大敎文TIC



통일문제 세미나 열려

안보연구소(소장=강성운·행정대 학원)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오늘 의 과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 본질과 전망'이란 두 주제로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동국관(L306)에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 "한반도 통일문제와 오늘 의 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제1부는 북한학과 진화과 조교의 사회로 5명의 학생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제2부는 교수중심 세미나로 진행되는데 고유환(북한학) 교수의 사회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과 전망'의 주제를 가지고, 민병천 총장이 △경제정책의 정책전망에 대해 기초발표를 한 후, 강성운 안보연구소장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출현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 사카이 다카시 '일본법무성 관계자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적 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벌여질 토론자리에는 유광진(정치외교학) 교수, 강경구(사회학) 교수, 최수영 민족통일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여학생 취업특강 실시

취업과(과장=황우열)는 내일(27일) 학원관소강당에서 여학생 취업특강을 실시한다.

여학생부처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여학생 취업설명회의 강사는 이화여대 평정희 취업포도심장이며 여성인력을 많이 쓰려하는 추세에 맞춰 취업에 대한 전반적 요령과 면접방법등을 토론회식으로 진행한다.

한중주군 경제논문우수상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제9회 대학생 경제논문현상공모에서 본교 한중주(무역4)군이 재정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군은 당선소감에서 "국민의 형평과 복지에 대한 욕구를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와 그방향 및 개혁에 따르는 재원조달방안을 설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공관위 장학금 전달

복지사업공공관리위원회(위원장=배형·경제학 이하 공관위)와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의사위원장=강희순·불교4 이하 학부위)는 지난 21일 공관위사무실에서 복지장학금 대상자 5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슬라이드상영과 함께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도서관-경과보고, 사업규모상향, 예산 집행 내역, 건의사항 등 △전자계산소-일반 업무보고, 경주 캠퍼스 네트워크 모형설명, 각 주체의 분담 역할, 발전적 네트워크 구성 방향, 기대효과등의 순으로 발표됐다.

총학선거 본격돌입-단대선거 마무리

총학 후보자 등록 마감 내일(27일)까지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총학생회선거를 앞둔 가운데 차츰 정리되어 가고 있다.

제27대 총대의원회 정·부의장은 박대용(불교4)·김재욱(수교4) 조가 1백3표를 얻어 당선 확정됐는데 총유권자 2백4명중 1백53명이 투표에 참여해 7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김도환·최두성 조는 50표를 얻었다.

각 단과대 선거는 오는 28일까지 모두 정리되고, 내일(27일)까지 총학생회 후보자등록이 마감된다. 다음날 1일 1차유세, 3일 2차유세, 8일 3차유세, 9-10일 총투표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27대 불교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24-25일 양일에 걸쳐 실시됐다.

단일후보의 찬반에 대한 형식으로 열린 이번 선거에서는 김인성(불교3)·김희균(선3) 조가 62.8%의 투표율에 71.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신뢰받는 학생회 △대중적 조직력의 구축 △불교대의 전체성 △불교대의 부흥 꿈을 불교로부터 △불교대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인성·김희균 조는 "앞으로는 학생회의 활동을 많은 학우들과 함께 계획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문과대 제27대 정·부학생회장 일 후보자 좌수일(국문3), 조대정(국민윤리3) 조는 24일 제1차 유세를 마치고 오늘(26일) 제2차 유세를 갖는다.

단독으로 출마한 이번 일 후보자는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까지 운영의 제자리 찾기 △순위·집부연선 회의로 사업 진행의 통일성을 확보 △문과대 집행부와 과일꾼과의 내용적 연계 △소모임 연합의 위상 재정립의 선거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후 일정으로는 27-28일 양일간의 투표와 28일 개표가 남아있다.

제11대 이과대 학생회선거에 기호 1번 박동민(물리3)·박소현(화학2) 조가 기호 2번 윤기원(통계2)·신재은(수학4) 조가 입후보했다.

"진보실천 자유공간"을 구호로 내건 기호 1번 박동민·박소현 조는 이과대 공개성의 합리적 대안으로 PC 통신을 이용한 전자계산기 BBS운영 이과대 학생회 체계 개편, 풍미제의 학술문화제 정착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2번 윤기원·신재은 조는 "뚜렷한 실천·어우러지는 이학 공동체"라는 구호 아래 학년대표 만남 학교 실시, 정기적인 이과대 학생 대표자 회의 실시, 이과대 학생회 집행부 구조개선등을 공약했다.

이후 선거 일정은 오늘(26일) 2차 유세, 27-28일 선거, 28일 오후 7시 개표이다.

제8대 법과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나상일(법3)·서상진(법2) 조가 단독 입후보하였다.

"자유로운 지식 창조하는 법대인"을 구호로, 학생회 운영체계의 혁신, 학회·소모임의 재 조모습 찾기, 참여의제를 통한 교수권·학생권 지키기, 과제열람실 및 학습공간 확보, 하나의 법대인 등을 주요공약으로 한 나·서 후보는 지난 24-25일 이틀간 투표를 실시, 당선 확정되었다.

총유권자 2백95명중 2백8명이 투표했고, 찬성 1백96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제8대 사회대 선거에 입후보한 장삼순(사회3)·여제용(영의2) 조는 "역동하는 지식 진보의 내일"을 선거 구호로 내걸고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공청회 및 유세를 가졌다.

오늘(26일) 투표 및 개표가 있는 중·여 후보의 주요공약은 △사회과학 학풍 만들기=교육과정위원회 건설, 실험적인 강의 모니터제 제안, 객관적인 학술제 개최, '최고논문상' 제정 △언론지발간 △자율적

주체의 학생회 건설 △생활도서관과 컴퓨터실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발전 등이다.

제27대 경상대 정·부학생회장예 단일후보한 서동욱(무역3)·조성식(경제3) 후보는 어제(25일) 유세를 갖고 오늘(26일)부터 투표에 들어간다.

"실천하는 지식 경시대어! 변화의 모색과 대안의 건설로 통일 조국의 새 시대를 맞이하자"는 구호의 서·조 후보는 공약으로 △동맹한마당의 학술제 강화 △과과 단대의 결함력 강화 △학생자치 활동의 영역 강화 △학생회 활동의 공개와 참여 보장 △학생회실의 생활의 장 △간부 일꾼의 생활력 혁신 △생활문화운동의 대중화 △취업대책위원회 공간 확대 및 다양화 △경상대 전문성 확보 △5개학과와 교류확대와 하나 되는 사업 마련 등을 내걸었다.

제27대 농과대 학생회 정·부회장 등록이 지난 12일 마감되었으며 19일 1차유세, 25일 2차유세를 가졌다.

기호 1번으로 입후보한 우은식(농생3)·김기문(농3) 조는 학생대책위원회의 조직, 각각 문제해결, 학생과 의 새로운 대화통로마련, 복지시설의 완비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한 박동현(농생3)·박형규(산자2) 조는 학생대표회의의 강화, 소모임활동지원, 정간지 발행, 해화관 복지완비 및 가꾸기, 농활학점회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농과대 투표는 오늘(26일)과 내일(27일) 양일간 해화관 2층로비에서 실시된다.

제17대 공과대 선거일정은 10월 26일부터 27일에 투표를 하고 27일 당일에 개표를 할 예정이다.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이 지난 19일에 마감되었다. 후보자로는 기호 1번 천성국(컴공3)·유명근(산공2) 조이고, 기호 2번은 김성현(산공3)

·영문3 이하 야총)는 지난 7일부터 △무원직환 종과중원 전면 백지화 △전산통계학과 과명개칭 즉각 철회등을 주장하며 발인 교학과 점거농성을 지난 11일 철회했다.

야총은 11일 동안의 점거기간중 학생처장 노완섭(식품공학) 교수와의 간담회, 학교와 2차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합의했다.

지난 14일 학교측의 협상제시문을 받은 후 야총은 지난 18일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18일 학생처장과의 최종면담을 거쳐 학생처장과의 서명 확인을 받았다.

합의사항에 대해 부학생회장 강승성(영문3)군은 "학교측도 우리측과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협상결과는 상반기 합의사항 이행, 전

·박창민(기계3) 조이다. 기호1번의 공약은 △공대 자부심 살리기 △올바른 학생회 위상정립 등이고, 기호 2번은 △공간문제 해결 학생회의 강화 △기차재 확충 등이다.

제27대 사범대 학생회 선거의 열기가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다.

"목적 사대 사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조현정(국교3)과 홍석민(지교3) 후보는 24일 오후에 2차 유세를 끝으로 25-26일 양일간에 걸쳐서 투표를 들어갔다.

제8대 예대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 마감됐으며 어제(25일)부터 오늘(26일)까지 투표를 한다.

단독출마한 조진호(영문3)·구철회(미술2) 조는 생활부 조직, 간부만 남학교 실시, 예대대 발전추진위원회 조직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제 11대 야간강좌 학생회 선거에 기호 1번 오은성(영문2)·김대건(무예2) 조가 기호 2번 황인구(영문2)·김준철(영문2) 조가 입후보했다.

기호 1번 오은성·김대건의 공약사항은 △사물함 사용비 인하 및 수익금 장학금으로 사용 △생리대 자판기 설치 △5층로비에 완공기 설치등이다.

"초콜라팜"이란 구호를 내건 기호 2번 황인구·김준철 조는 △동국관 앞 벤치 교체, 중설 △취업대비 인성, 적성검사, 토의, 토론 테스트 6월중 무료 실시 △야간강좌 자주후 추진위원회 확대, 강화등의 공약사항을 내걸었다.

선거는 26일~27일 투표로 마무리 된다.

경주캠퍼스 각 학생기구 선거가 지난 10일 총대의원회(의장=윤길주·국제경제4 이하 총대)의 후보자 등록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27일 오후 3시 시험지실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안대수(경제3), 김용석(야간영문3) 조가 단독출마했다. 또한 법정대, 의대, 한의대를 제외한 각 단과대 선거가 지난 24일부터 오늘(26일)까지 3일간 후보자등록을 받고 오는 11월10일 투표를 실시한다.

각 단과대 선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불교문화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지민·불교4)는 지난 20일 선거공고와 함께 선거일을 오는 11월10일(미정)로 정하고 1차 롤미팅을 오늘(26일) 오후7시 가질 예정이다.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오정기·철4)는 지난 17일 선거공고와 함께 오는 11월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선거운동과 오는 11월3일과 8일 동아원에서 1차 유세와 2차 유세를 각각 가질 예정이다.

△자연과학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창용·화학4)는 오는 28일 5시 1차 롤미팅을 가진후 오는 11월 3일과 9일 1차유세와 2차유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정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차승철·법4)는 오늘(26일) 5시 1차 롤미팅을 가지고 오는 11월8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경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준현·경영4)는 오는 27일 5시 1차 롤미팅을 가진후 선거세부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외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기택·분2)는 어제(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부대 선거가 총대의원회 선거관리하에 오늘(26일) 1차 롤미팅을 가지며 후보자 등록기간과 투표일은 타단과 동일하다.

한편 각 자치기구 선거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동아리연합회(회장=심수민·동국연극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후보자등록을 받고 오는 11월3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후보자는 손성욱(HAM·행정3), 정영주(아름소리·수교3) 조가 단독 출마했다.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조일환·국제경제4)는 지난 12일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입후보자는 박종필(행정3), 황신정(불교야동3) 조와 허은석(조경3), 이경주(경제3) 조 2팀이 등록했으며 오는 11월8일 실시한다.

학전무대

아르바이트

O...지난19일 20명 남짓한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사범대 제1차 선거유세장에는 다른 단대 학우들이 대부분이 었다.

게다가 같은날 총대의원장 선거유세 및 투표장이던 소강당의 상황은 더욱 심하여 유세를 들으러온 학우는 단 10명뿐이었다.

이에 한 학우 왈 "이렇게 학우들의 호응이 없다가는 얼마안가서 총학생회장도 본주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겠네요"

글러온 돌 박힌 돌

O...일본의 사이트의무차관이 남북대화보다는 북·일수교 협상재개가 선행될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경우로 지원을 위해 중국, 호주, G7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글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낸다는데 이걸 박힌 돌이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고 있으..."

조직된 사고

O...지난 21일 발생한 성수대교붕괴사고로 서울시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유인즉 사고발생전인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전 시장은 붕괴위험에 대한 경고를 보냈었다는 말로 일축시켰다.

게다가 지난 5월 대통령의 성수대교의 안전에 대한 보고 지시에도 조직된 보고서를 근거로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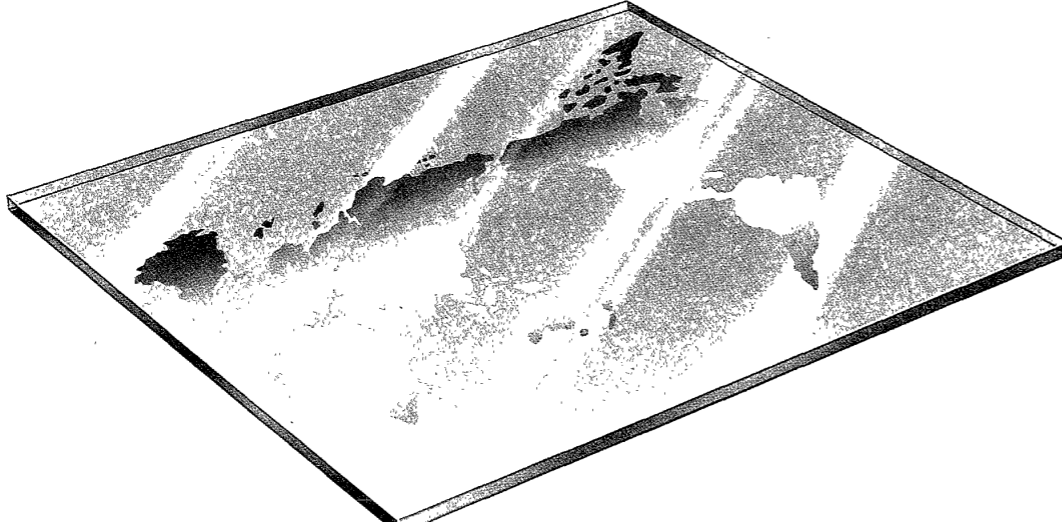
이를 본 회전문대자 왈 "대통령까지 속일정도면 시민 몇명쯤 죽는거야 눈에 보이거나 하겠나?"

일시휴일

O...오늘은 좋은날! 시험엔 기분 날, 휴감된 날! 시험기간 중, 때아닌 일시휴일이 생겼다는데.

다름아니라, 물리회회의 학술발표가 본교 원효관에서 개최돼 원효관에서의 시험이 연기되고, 일부 수업이 휴강됐다는 것.

이에 한 학우 왈 "물리회회 발표로 인해 본교의 명성을 높이지 못했으니, 정작 주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볼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 10대 유리중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판유리, 관유리, 유리섬유, 유리정실유, 결정화유리, 건축용안전유리, 자동차안전유리, TV브라운관유리, 경질유리, 실린트

